

박성현·장하나·박민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서 대격돌

박성현, 1년 5개월만에 한국 무대 도전장

2013년 챔피언 장하나, 다시 한 번 정상 노려

박민지, 시즌 7승 정조준...오늘부터 대회

2021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1억8000만원)이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여주시 블루헤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단일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신지애, 김하늘, 장하나, 전인지, 고진영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우승하며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잡았다. 대회는 지난 2019년에 20주년을 맞아 총상금 2억원을 증액하며 메이저대회다운 면모를 갖췄다.

박성현(28)은 약 1년 5개월만에 KLPGA 투어에 출전한다.

박성현은 "오랜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설레고 기대도 된다. 최선을 다해 좋은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출전 소감을 밝힌 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믿어 주시는 만큼 좋은 에너지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뽐내며 루키 송가은(21)도 주목을 받고 있다.

송가은은 "흔들렸던 아이언 샷감이 잡히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샷감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며 "높아만 보였던 우승의 벽을 허물면서 자신감이 올라왔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장하나(29)다.

이 대회 2013년 챔피언 장 하나는 "연이은 대회로 무척 피곤하지만, 반드시 우승하고 싶은 대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대회 코스는 매년 정말 어렵다. 러프가 길고 그린 스피드도 빨라서 가장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경기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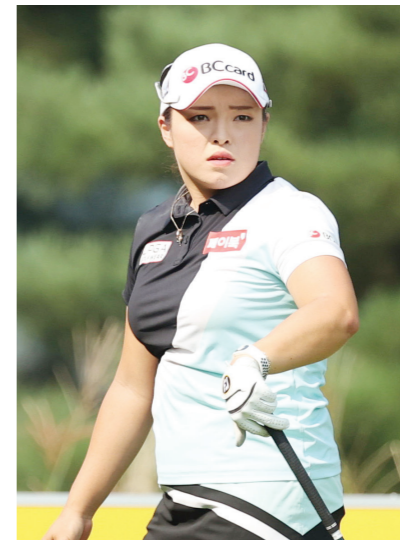
올 시즌 최고의 선수인 박민지(23)는 하반기 들어 우승컵을 들지 못하고 있다.

시즌 7승에 재도전하는 박민지는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코스는 정교한 샷이 가장 중요하다.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은 물론,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으로 공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목표는 언제나 우승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올 시즌 메이저 챔피언인 박현경(21)과 이다연(24)을 비롯해 삼금순위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이소미(22)와 임희정(21), 최해진(22), 유혜란(20)



등이 메이저 우승을 노린다. 대상포인트 부문에서 매 대회 치열한 순위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1위 박민지가 556포인트로 2위 장하나에 14포인트 앞선 가운데 매주 큰 대회가 연이어 열리며 순위 변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역대 두 명의 다승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강수연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3연패의 위업을 이뤘고, 고진영이 2016년과 2019년에 우승하면서 다승 기록을 남겼다. 역대 우승자 중 유일하게 출전한 장하나가 우승하면 역대 3번째 다승자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한편, 주최사인 하이트진로(현)는 본 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대회까지



의 기부금은 4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선수 후원금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5대의 장애인 이동 차량과 10톤의 여자 쌀을 사회 복지기관에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SBS 지상파와 주관방송사인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올레TV, LG유플러스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뉴스

'혹사 상징' 손흥민, 3년간 이동거리 22만km·비행 300시간

국제축구선수협회 보고서 "경기력과 웰빙에 부정적" 케인보다 2.5배 이동 많아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29·토트넘)이 축구선수의 혹사 이슈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영국 매체 '풋볼리턴'은 6일(한국 시간)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8월 이후를 기점으로 손흥민이 약 3년 동안 22만3000km를 이동했고, 비행 시간만 300시간이라고 전했다.

이는 FIFPro가 44개 리그의 선수 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로 총 4만 경기를 바탕으로 나왔다.

손흥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정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중에도 무려 12.5일(300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서 뛰면서 한국 국가대표 경기 출전을 위해 아시아 대륙을 오갔기 때문에 유독 이동거리가 길었다.

'풋볼리턴'은 "토트넘이 몇 년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손흥민은 이동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동료 해리 케인은 같은 기간 동안 123시간을 비행했고, 이동거리는 8만6000km였다.

FIFPro는 "손흥민의 국가대표 출전 횟수가 케인보다 적었으나 이동거리는 2.5배나 더 된다"며 "케인이 유럽 내에서 경기를 치른 반면 손흥민은 아시아와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놀라운 건 손흥민이 300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낸 것이다. 이는 국가간 국경을 이동하는 것만 계산한 것이다"며 실제 이동거리는 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동거리와 장시간 비행가 부담이지만 일정도 빠듯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위해 전날 귀국한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10시 영국 런던에서 리그 경기를 뛰고 비행기에 올랐다.

사실상 6일 하루만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고, 7일 시리아와 최종예선 3차전에 나서야 한다. 이후에는 이란 테헤란으로 이동해 12일 이란과 4차전을 갖는다.

FIFPro는 "과도한 이동은 선수의 경기력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6월 대표팀에 소집된 뒤, 혹사 논란에 대해 "사실 잘 모르겠다. (매치가 없다보니) 자연스레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뛰었다. (혹사 논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축구를 뛰려고 하지 훈련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대표팀을 오가는 게 피곤할 때도 있다. 오랜 비행과 시차 적응이 쉽지않은 않다. 하지만 대표팀에 항상 설렘과 책임감을 가지고 온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



이상수,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아탁구 남자 단식 우승

결승서 대만 왕즈위안 꺾고 금메달 획득

이상수(삼성생명)가 한국 선수 최초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수는 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위안(대만)을 폴세트 점전 끝에 3-2(10-12 11-6 11-6 7-11 11-8)로 물리쳤다.

1952년부터 치러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상수가 처음이다.

1988년 니가타 대회 유남규, 1992년 뉴델리 대회 강희찬, 2000년 도하 대회 김택수, 2017년 우시 대회 정상은이 남자 단식 결승에 오른 적이 있지만, 모두 결승에서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김택수는 대만 선수에, 나머지 3명은 모두 중국 선수에 졌다.

단식 세계랭킹 22위인 이상수는 27위인 마흔살 베테랑 왕즈위안을 상대로 고전했다.

1세트를 한바탕 이상수는 2, 3세트

를 내리 따내 승부를 뒤집었지만, 4세트를 내주면서 5세트까지 갔다.

5세트 6-6으로 맞선 상황에서 내리 2점을 따내 리드를 가져간 이상수는 왕즈위안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를 낙담했다.

이상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한국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3개로 마쳤다. 앞서 남자 단체전과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나선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땀다.

또 여자 단식(신유빈), 남자 복식(장우진·임종훈), 혼합 복식(장우진·전지희), 여자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탁구는 이번 대회 모든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다만 이번 대회에는 최강국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다른 국가들도 1인 선수를 제외하고 대표팀을 꾸렸다.

추신수, 역대 최고령 20홈런-20도루...양준혁 기록 깼다

39세 2개월 22일 나이

메이저리거 출신 추신수(39·SSG 랜더스)가 KBO리그 역대 최고령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추신수는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쏠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3-0으로 앞선 4회초 2사 1루에서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작렬했다.

추신수는 LG 선발 이만호의 초구 직구를 노려쳐 비거리 125m짜리 홈런을 날렸다.

지난 1일 시즌 20도루를 채운 추신



수는 39세 2개월 22일의 나이로 시즌

20호 홈런을 때려내면서 역대 최고령

20홈런-20도루 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전 역대 최고령 20홈런-20도루 기록은 양준혁이 2007년 10월 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기록한 38세 4개월 9일이다.

39세 이상 시즌에 20개 이상의 홈런을 친 선수는 추신수가 홀리오 프랑코, 펠릭스 호세, 이성엽, 이호준에 이어 역대 5번째다.

20홈런-20도루는 KBO리그 역대 54번째 기록으로, 올 시즌 이를 달성한 것은 추신수가 구자욱(삼성 라이온즈)에 이어 두 번째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2009년과 2010년, 2013년 등 3차례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황희찬, EPL 파워랭킹 7위로 경창

뉴캐슬 상대 멀티골 활약 161계단 상승...손흥민 37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황희찬(울버햄튼)이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매긴 파워랭킹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6일(한국시간) 스카이스포츠가 내놓은 파워랭킹에 따르면, 황희찬은 6011점으로 무려 161계단이나 상승해 7위에 자리했다.

황희찬은 지난 2일 뉴캐슬 유나이

티드와의 2021~2022시즌 EPL 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울버햄튼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임대로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은 3골을 기록 중으로 단숨에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4536점)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3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다. 또 상대 자책골



이었던 두 번째 골을 유도하는 돌파와 패스로 승리를 이끌었다. 둘은 EPL 사무국이 선정한 7라운드

베스트11에 나란히 포함됐다.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은 골, 도움, 유효 슈팅, 태클, 승패 등 35가지 통계에 대해 선수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바탕으로 매긴다. 1위는 모하메드

살리(리버풀)다. 뉴스

KIA 좌완 투수 박준표, 팔꿈치 수술

"재활에 3~4개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우완 사이드암 투수 박준표(29)가 수술대에 올랐다.

KIA는 6일 "박준표가 5일 오후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뱀조각과 옷자란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결과는 좋다. 2주 후 실

할 예정"이라며 "약 3-4개월 간의 재활과 보강 훈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준표가 손조롭게 재활을 마치면 내년 시즌 개막에 맞춰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9년 5승 2패 15홀드 평균자책점 2.09, 2020년 7승 1패 6세이브 11홀드 평균자책점 1.57로 활약했던 박준표는 올 시즌 32경기에서 2승 4패 4홀드 평균자책점 5.91의 아쉬운 성적을 냈다.